

미세먼지 질환군별 건강수칙

안과 질환자편

미세먼지는 안구표면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알레르기결막염과 같은 안구표면의 염증 질환과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안구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안구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으며 결막염, 각막염, 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

이에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질환군별 상세 건강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.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잘 알고 실천해 주세요.



대한의학회
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



질병관리청
KDCA



미세먼지 질환군별 건강수칙 - 안과 질환자

전문가 권고 강도 (약함 : ★, 강함 : ★★)

미세먼지 건강수칙 - 안과 질환자		미세먼지 예보등급	
		보통	나쁨
	<p>1. 안구질환자*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.</p> <p>*결막염, 각막염, 안구건조증 등</p>	★★	★★
	<p>2.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·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.</p>	★	★★
	<p>3.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콘택트렌즈의 사용을 삼가세요.</p>	★★	★★
	<p>4. 콘택트렌즈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 하드렌즈보다 소프트렌즈를 착용하세요.</p>		★★
	<p>5. 미세먼지 노출 후에는 눈세척을 하세요.</p>	★★	★★